



창사 33주년 기념식

“대한민국 1등 방송을 넘어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 기대”

창사 33주년 기념식이 11월 13일(월)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개최되었다.

김윤상, 주시은 아나운서가 진행한 이번 기념식은 SBS 올해 성과를 돌아보는 테마 영상으로 시작했다. 올해도 SBS는 8년 연속 2049 시청률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SBS는 한계 없는 콘텐츠 경쟁력으로 드라마, 예능, 교양, 뉴스,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을 주도했다. 웰메이드 작품들을 탄생시킨 드라마, 상상의 경계를 뛰어넘는 콘텐츠로 웃음과 감동을 전한 예능, 신선한 소재와 시대정신을 구현한 교양, 시대의 어젠다를 제시한 뉴스, 적극적인 교감으로 청취자층을 확장시킨 라디오까지 올해 SBS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도전을 거듭했다.

대체 불가능한 인재 육성이 중요

박정훈 사장은 기념사에서 “올해 지상파 광고 매출이 창사 이래 최저를 기록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SBS는 경쟁력뿐 아니라 광고와 유통의 시장 점유율 1등을 지켰다. 또한 목동 사옥의 리모델링도 성공적으로 완료해 휴식과 업무 환경도 대폭 개선했다”며 고생한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정훈 사장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경쟁하는 시대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며 “현재에 안주하려는 매너리즘과 적당주의를 버리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우물 안에서 과감히 뛰쳐나와 무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BS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하여 박정훈 사장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매사에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특종보다는 정확한 팩트에 충실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줄 아는 도전적인 사람, 사회규범과 약속을 잘 지키고 남들이 안 보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소중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야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사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세영 창업회장은 축하사를 통해 “SBS가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 1위에만 안주하지 않고, 매체의 경계를 넘어, 국경을 넘어 ‘아시아 넘버 원’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기업이 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환경이 불투명할수록 SBS 임직원이 중심을 잘 잡고 맡은 바 본연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당부했다. 그러기 위해서 “매사의 기본은 ‘정직’과 ‘원칙’이다. 정직과 원칙을 지키다 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지혜와 방법이 다 나온다”고 강조했다.

‘올해의 SBS인’ 5명, ‘올해의 SBS팀’ 4팀 포상

기념사에 앞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2023 올해의 SBS인’ 우수상은 추윤곤(솔루션기획팀), 김화정(예능2CP), 김아영(보도본부 정치부), 조성원(대외협력실 정책팀), 홍순기(미디어기술연구소)가 받았다. 솔루션기획팀 추윤곤 차장

대우는 신규 광고주를 발굴하고 지자체 및 정부 부처와 다양한 마케팅 협업 모델을 개발하여 마케팅 매출 확대와 수익 개선에 공을 세웠다. <굴 때리는 그녀들>의 메인 연출자인 김화정 PD는 스타성을 갖춘 신규 구단을 성공적으로 론칭하고, 대한민국 대표 축구인들을 신선한 예능 캐릭터로 발전시켜 프로그램의 팬덤 확장에 기여했다.

정치부 외교안보팀 김아영 기자는 ‘미국의 한국 포탄 운송 계획 문건’, ‘IAEA 사무총장 인터뷰’를 단독 취재하여 SBS 보도의 위상을 제고했다. 정책팀 조성원 ESG 담당은 사내 제도들과 프로그램 성과를 ESG 가치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ESG 경영 전략을 전개했다. 미디어기술연구소 홍순기 차장대우는 ‘고지검출 시스템’, ‘촬영 영상 시간 동기화 서비스’, ‘편집비서 2.0’ 등 SBS 콘텐츠에 최적화된 AI 기반 제작 지원 시스템 개발로 제작 프로세스를 혁신했다.

‘올해의 SBS팀’ 대상은 ‘목동 사옥 Value Add 프로젝트’를 통해 편안한 휴식과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고, 수준 높은 F&B 테넌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SBS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한 ‘자산개발팀’에 돌아갔다. 우수상은 <궁금한 이야기 Y>, <SBS 스페셜> 등을 통해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적 가치를 제고한 ‘교양 2CP’와 <미운 우리 새끼>, <신발벗고 돌싱포맨>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예능 3CP’, 라디오 유튜브 채널 ‘에라오’의 구독자수 및 수익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AI 기술을 통한 혁신 사례를 발굴한 ‘라디오콘텐츠전략팀’이 받았다.



SBS 창사 33주년 박정훈 사장 기념사

“불확실성 시대, 우리의 미래는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SBS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그룹 SBS’가 서른세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연초부터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돼서 매우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지상파 광고 매출이 창사 이래 최저를 기록했고 광고 기반의 유통 수익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요즘은 한 해 한 해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광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편성 조정으로 위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도 어김없이 경쟁력뿐 아니라 광고와 유통의 시장 점유율 1등을 지켜왔습니다. SBS 미디어그룹의 우수한 인재들이 경쟁사들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광고와 협찬, 유통과 사업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목동 사옥의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서 휴식과 업무 환경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SBS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33년간 기적과 같은 위상의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창사 초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경쟁사들은 난공불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1등 방

송사이면서, 1등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쟁자들은 방송사들이 아니고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상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적은 항상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범도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내부의 이기주의와 분열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적은 바뀐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재에 안주하려는 매너리즘과 적당주의입니다. 과거의 타성에 젖어있는 우물 안의 세상은 잠시 평화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의 큰 변화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도태되는 세상입니다. 상상력을 제한하는 우물 안에서 과감히 뛰쳐나와 무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그룹으로 도약하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 2030’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변화무쌍한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 전략 중의 하나는 지상파의 불합리한 규제에서 자유로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추진해온 드라마, 예능의 분사는 해당 부문 구성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스튜디오 S’와 ‘스튜디오 프리즘’은 확실한 기업 마인드로 재무장하고, 지금보다 더 창의적 콘텐츠를 기획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SBS 미디어 그룹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부문의 혁신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지상파 최초의 지식 구독 플랫폼인 ‘스프’ 앱도 출시해서 독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계에서 가장 앞선 AI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편집 등 방송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지난 5월 ‘SBSi’를 자회사로 인수하였고 올해 안에

‘디지털 뉴스랩’을 분할해서 보도 부문도 ‘스튜디오’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메가 스튜디오 전략’을 통해서 콘텐츠와 유통을 결합하고 다양한 IP를 확보해서 높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2월에는 콘텐츠허브를 100% 자회사로 만들고 내년 상반기 내에 ‘스튜디오 S’와 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가족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사람이 중요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가 있는 대표팀과 없는 팀은 갈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불가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매사에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종보다는 정확한 팩트에 충실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줄 아는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사회규범과 약속을 잘 지키고 남들이 안 보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중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야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위대한 SBS’의 모습이 하나하나 완성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정은 지금도 중단 없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위대한 목표도 아스팔트 탄탄대로에서 성취된 역사는 없습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전 2030’을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고, 그 성취의 결실은 현재의 우리들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게 될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SBS의 창사 서른세 돌을 모두 함께 축하하면서 창사 시절부터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윤세영 창업회장님과 SBS 미디어 그룹 임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SBS 창사 33주년 윤세영 창업회장 축사

“‘정직’과 ‘원칙’을 지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회장 윤세영입니다. SBS 창립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 올 한 해 SBS가 이룬 성과를 잘 봤습니다. TV, 라디오, 디지털 할 것 없이 모든 장르에서 1위 경쟁력을 유지하고, ‘스포츠 중계의 명가’답게 아시안게임 중계방송도 거의 전 종목에서 타사를 압도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서 한시름 놓을 줄 알았는데, 국내외 복합 변수로 경기 회복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SBS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내실을 기하면서 위기를 잘 헤쳐 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경제 상황이 걱정이 되지만, 이런 때일수록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황이 좋아졌을 때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SBS가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 1위에만 안주하지 않고, 매체의 경계를 넘어, 국경을 넘어 ‘아시아 넘버 원’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기업이 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업들이 잘 진

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제도 걱정이지만, 국내 정치도 총선 같은 큰 이슈를 앞두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미디어 업계에 몸담고 있는 SBS 임직원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고 맑은 바 본연의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직장이든 집에서든 매사의 기본은 ‘정직’과 ‘원칙’입니다. 힘들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진심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나 스스로부터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칙을 지키는 대신에 편안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항상 경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직과 원칙을 지키다 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지혜와 방법이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축하하러 와서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게 되어 미안합니다만, 여러분께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아까 SBS 사옥을 들어오다 보니까 ‘밸류 애드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오목공원 쪽 로비와 그 아래위층까지 깔끔하고 멋지게 탈바꿈했던데, 이따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창사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Y DEMON

마이 데몬 “매혹적인 악마와 달콤한 거래가 시작된다”

11월 24일(금) 밤 10시 첫 방송



2023년 가을, 시청자들의 마음을 달콤하게 홀릴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마이 데몬>이 11월 24일(금) 첫 방송된다.

<마이 데몬>(극본: 최아일, 연출: 김장한)은 악마 같은 재벌 상속녀 ‘도도희(김유정 분)’와 한 순간 능력을 잃어버린 악마 ‘정구원(송강 분)’이 계약 결혼을 하며 벌어지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유한한 행복을 주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이끄는 위험한 악마와의 ‘영혼 담보’ 구원 로맨스가 차원이 다른 설렘을 불러일으킨다.

김유정X송강의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무엇보다 대체 불가 청춘 배우 김유정, 송강의 판타지 같은 만남이 뜨거운 관심을 모은다. 특히 바라만 봐도 홀릴 듯한 두 사람의 치명적 비주얼 케미스트리가 벌써부터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킨다. 김유정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미래 그룹 상속녀이자, 악마를 사랑한 ‘도도희’로 열연한다. 미래 그룹의 이방인인 도도희는 일찌감치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냉철해졌다. 사랑에 시니컬한 그는 ‘악마’ 정구원과 계약을 맺으며 상상 초월의 변화를 맞는 인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앞에 나타난 악마가 ‘구원자’일지 ‘파괴자’일지 궁금증이 쏠린다. 김유정은 까칠한데 부드럽고, 여린데 강한 ‘솔트 라떼’ 같은 도도희의 ‘단짠’ 매력을 다채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송강은 완전무결하고 치명적인 악마 ‘정구원’으로 역대급 변신에 나선다. 현생이 지옥인 인간에게 영혼을 담보로 위험하고도 달콤한 거래를 하며 영생을 누려온 악마 정구원. 인간을 하찮게 여기며 200년 넘게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던 그는 너무도 이상한 여자 ‘도도희’와 얽히며 한순간 능력을 상실한다. 송강은 소멸을 막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강탈한 도도희를 지켜야만 하는 악마 정구원의 반전 매력을 변화무쌍하게 그린다. 이 외에도 이상아, 김해숙, 조혜주, 김태훈, 조연희, 이윤지, 강승호, 서정연, 허정도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의 설레고 유쾌한 시너지는 그 자체만으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마이 데몬’ 제작진은 “악마와의 로맨스라는 매혹적인 설정만큼이나 캐릭터 역시 개성이 넘친다”라면서 “캐릭터의 매력을 극대화한 배우들의 열연은 기대 이상이다. ‘설렘 메이커’ 청춘 배우들과 연기 고수들의 차진 킥타카가 차원이 다른 로맨스 도파민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 금토드라마 <마이 데몬>은 <7인의 탈출> 후속으로 오는 11월 24일(금) 밤 10시 첫 방송된다.

극과 극 취향 존중 토크쇼



12월 5일(화) 컴백

화요일 밤 대표 토크쇼 <강심장>이 극과 극 취향 존중 토크쇼 <강심장 VS>로 돌아온다.

이전 시즌과 전혀 다른, ALL NEW 버전으로 리뉴얼된 <강심장 VS>는 상상초월 셀럽들과 함께 매회 누구나 흥미를 느끼고 논쟁할 수 있는 토크 주제에 대해 ‘마라맛 토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색다른 조합으로 뭉친 MC 4인방과 서로 취향이 갈리는 토크 주제를 놓고 극과 극으로 나뉜 셀럽들이 펼치는 과몰입 토크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다.

<강심장 VS>를 이끌어갈 새 MC로는 전현무, 문세윤, 조현아, 엄지윤이 나선다. MBC와 KBS 연예대상을 각각 거머쥐었던 전현무와 문세윤의 본격 토크 대결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리얼리티와 관찰 예능, 버라이어티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두 사람은 이번 <강심장 VS>를 통해 ‘대상 입담’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핫셀럽’ 조현아, 엄지윤은 <강심장 VS>를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토크 예능 캐릭터를 선보인다. ‘맑은광’ 조현아는 기존의 토크 예능 문법을 무너뜨리는 독특한 입담으로, 엄지윤은 MZ 세대 대표 아이 콘다운 촌철살인 입담을 펼칠 예정이다.

다시 한번 화요일 밤을 뜨겁게 달굴 극과 극 취향존중 토크쇼 <강심장 VS>는 12월 5일(화) 밤 10시 20분에 첫 방송된다.



SBS 창사특집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래’ 이야기

11월 18일(토) 첫 방송

지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살며,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하는 포유류지만, 여전히 미지의 동물인 고래. 그들의 은밀한 세상을 담은 <고래와 나>(연출: 이큰별, 이은솔, 글·구성: 홍정아)가 오는 11월 18일(토) 첫 방송된다.

창사 33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송되는 <고래와 나>는 국내 최초 8K 초고화질 수중 촬영으로 보다 생생한 화면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소설 ‘모비딕’의 주인공 향고래, 남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혹등고래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사랑 이야기,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는 영국 자연사 박물관 수장고 속 감춰진 비밀, 캐나다에서 전해온 흰돌고래와 북극곰의 충격적인 생존기, 그리고 고래가 인간에게 남긴 다잉 메시지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총 4부작으로 펼쳐진다.

먼저, 1부 ‘머나먼 신비’에서는 인간의 모정과 똑 닮은 향고래의 모습을 담았다. 2부 ‘고래의 노래를 들어라’에서는 고래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쓰레기 더미 속 참혹한 비명을, 3부 ‘거대한 SOS’에서는 고래가 보낸 SOS를 따라 시작한 여정 끝에 마주한 지구의 현실을 보여준다. 마지막 4부 ‘고래가 당신에게’에서는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 인간과 지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고래의 다잉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배우 한지민X박해수 내레이션

이번 창사 특집 <고래와 나>를 위해서 <힙하게>, <우리들의 블루스>의 배우 한지민과 <수리남>, <오징어게임>의 배우 박해수가 내레이터로 나섰다. 한지민은 제작진과 첫 만남에서 “고래뿐 아니라 인간, 지구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 좋았다”고 전했다. 늘 자유로운 고래를 닮고 싶었다는 박해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고래, 그리고 지구와 환경에 대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음악은 다큐멘터리 <차마고도>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음악 감독인 양방언이 맡았다.

한편, <고래와 나> 1부 ‘머나먼 신비’는 18일(토) 밤 11시 5분, 2부 ‘고래의 노래를 들어라’는 25일(토) 밤 11시 10분, 3부 ‘거대한 SOS’는 12월 3일(일) 밤 11시 5분, 4부 ‘고래가 당신에게’는 12월 10일(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전 국민 힐링쇼

무해한 웃음과 감동

푸바오와 할부지

11월 23일(목) 첫 방송



식막하고 뻥뻥한 현실 속에서 무해한 웃음과 행복감,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선물해 줄 <푸바오와 할부지>가 11월 23일(목)부터 총 4부작으로 방송된다.

<푸바오와 할부지>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2MC 전현무, 장도연의 입담과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해져 눈길을 끈다. 특히, 푸바오의 할아버지이자, 바오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강철원 사육사가 직접 출연해 푸바오의 매력을 낱알이 공개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자연 번식에 성공한 아기 판다, 푸바오의 탄생과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7년 전, 중국의 보물이자 국제 멸종 위기종인 판다 커플 아이바오와 러바오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직접 중국을 찾았던 강철원 사육사의 그때 그 시절 이야기까지 바오 가족의 생생한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판다 커플의 한국 적응을 위해 강철원 사육사가 쏟은 노력과 교감의 시간들도 공개된다. 아이바오와 러바오의 합방, 임신과 출산, 그 험난했던 여정과 초보 엄마 아이바오의 육아 스토리는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 여기에 말괄량이 푸바오와 사육사 할아버지의 케미가 만들어 낸 푸버지의 탄생 스토리도 더해진다. 2023년 7월, 쌍둥이 탄생이라는 또 한 번의 기쁜 소식과 함께 이별을 앞둔 푸바오, 그리고 그런 푸바오를 바라보는 강철원 사육사의 속마음까지 볼 수 있어서 벌써부터 무해한 웃음과 행복감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판다 가족을 밀착 취재해 온 <TV동물농장>의 영상에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2MC 전현무와 장도연, 그리고 강철원 사육사의 입담이 더해져 드라마보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판다 패밀리 이야기가 전해질 예정이다.

한편, <푸바오와 할부지>는 11월 23일(목) ‘1부 푸바오와 할부지’를 시작으로 ‘2부 그렇게 푸버지가 되었다’, ‘3부 금쪽같은 푸바오와 푸버지’, ‘4부 안녕, 푸바오’까지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올해의 SBS팀’ 대상-자산개발팀

“SBS 자산의 효율화, 새로운 수익 창출을 고민한다”

‘올해의 SBS팀’ 대상을 축하한다. 자산개발팀 업무에 대해 소개를 부탁한다.

자산개발팀은 도시계획, 부동산, 건축, 전기, 소방, 기계/설비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는 큰 틀에서 부동산개발/기획과 시설관리/공사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는 팀 내에서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SBS가 보유한 부동산자산과 각각 시설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시설관리 파트의 경우, 업무 공간의 재배치는 물론 방송시설과 상업시설까지 모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다.

올해 ‘목동 사옥 Value Add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소감 및 진행 에피소드는?

우선, 긴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준 사우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 공사는 신축이 아니라 증축 공사였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예를 들어, 공사 중 생방송 시간, 점심시간이면 소음이 나지 않도록 공사를 중단했던 경험도 있다. 또한 근무시간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냄새, 진동, 먼지 등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했다. 테넌트 유치를 위해 업체 담당자를 찾아가 사정하고, 수수료 협상만 8개월 넘게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입점이 완료된 지금도 신메뉴 개발 제한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종적으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목동 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1층 로비부터 2층 스토리 라운지, 지하 식당까지 모두 바뀌었다.

로비는 캐주얼, 비즈니스, 프라이빗 미팅이 가능하도록 세 종류의 회의 공간을 구상했고, 2층은 기존 역사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스토리를 담은 라운지 형태로 탈바꿈했다. 직원식당은 2003년 사옥 준공 이후 큰 공사가 처음인데, 오픈



시점을 맞추기 위해 철야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지하에 위치해 접근성이 안 좋았던 ‘여인천하(여성 휴게실)’가 채광이 좋은 22층으로 이동, ‘모성보호실’이라는 이름으로 재오픈했다. 모성 보호실에는 수유실, 헬스케어, 리클라이너 의자, 개수대,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으니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

‘일산제작센터’ 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일산제작센터는 기존에 A 부터 까지 9개의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최신설비를 갖춘 J, K 스튜디오를 추가로 기획/개발하여 올해 8월부터 드라마 제작 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일산제작센터 인접 유휴지 600평을 소품 창고로 신축해 세금과 외부 임대료를 절감하였으며, 주차장, 도로, 보행자도로, 조경 등 환경개선 공사도 진행 되었다. 향후 일

산제작센터는 주변 여건 변화와 부지 용도에 맞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향후 자산개발팀에서 준비하는 프로젝트는?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자산개발팀은 SBS 부동산자산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또한 방송시설 및 엘리베이터 교체 등 지속적인 환경 개선도 검토 중이다. 사옥 실내 온도와 수압 조절 등으로 직원들이 불편한 걸 알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 차원의 노력으로 봐주면 좋겠다. 실제로 목동 사옥은 중수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이용수를 활용해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SBS 그룹 구성원 모두가 회사를 사랑하는 만큼 SBS 시설도 내 집처럼 아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창사 33주년 포상 |



올해의 SBS 인 우수상

올해의 SBS 팀 우수상

추윤곤
솔루션기획팀

조성원
정책팀

김화정
예능2CP소속

홍순기
미디어기술연구소

김아영
정치부

교양2CP
정철원CP

라디오콘텐츠전략팀
이선아 팀장

예능3CP
곽승영CP

15년 만에 돌아온 **기아체험 24시간** 11월 17일(금), 18일(토) 15시간 방송



지난 27년간 전 세계에 나눔을 전파해 온 <희망TV>가 오는 11월 17일(금), 18일(토) 이틀 동안 15시간에 걸쳐 방송된다. 이번 <희망TV>는 1997년부터 12년 동안 방송됐던 <기아체험 24시간> 참가자들을 다시 초대해 그들의 가족과 함께 기부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NGO 단체인 월드비전과 함께 마련한 이번 <Again 기아체험 24시간>에서는 3백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굶으며 기아의 고통을 느끼고, 전쟁과 질병, 재해 등으로 고향을 잃은 난민들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

<희망TV> 27년, 시청자의 후원이 만든 놀라운 기적

<희망TV>를 통해 27년 동안 나눔을 실천한 정기 후원자는 38만 6천여 명, 누적 후원금은 5,696억여 원에 이른다. <희망TV>는 시청자들의 나눔으로 도움이 절실한 전 세계 50여 개국을 찾아갈 수 있었다. 1대 1 아동 결연, 희망 학교 100개 짓기 프로젝트, 우물 파기, 염소 지원, 인재 육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 희망을 선물해 온 지난 27년, 많은 아이가 후원을 디딤돌 삼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번 <희망TV>에서는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후원 아동과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통해, 나눔이 만들어 낸 놀라운 변화에 대해 조명한다.

아프리카로 떠났던 스타들, 그들에게 전해진 반가운 소식

<희망TV>와 나눔을 실천한 배우 김혜자, 박상원, 정애리, 유준상, 송재희-지소연 부부가 함께 만났던 해외 아동들의 근황도 공개된다. 30년 동안 해외 봉사만 27번 다녀왔다는 배우 김혜자



박상욱 시사교양국장

는 23년 전 케냐에서 처음 만났던 에꾸아무를 잊지 못한다. 16년 만에 에꾸아무의 근황을 확인한 김혜자는 “아프리카가 모두 이렇게 삶이 나아지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배우 정애리는 지난 9월 직접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해 15년 전 만났던 소녀병 모니카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맛봤다. <희망TV>와 함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로했던 배우 박상원, 유준상, 송재희-지소연 부부에게도 자립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소식이 전해졌다.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한 뒤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스타들은 후원에 동참해 준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밖에도 <희망TV> 방송 이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의 이야기 등 시청자와 <희망TV>가 27년 동안 함께 만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예정이다.

<희망TV> 5부에서는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기아체험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가수 쉐, ATBO, 아이칠린, 엔싸인, 엑신이 출연해 열정적인 공연으로 참가자들의 기운을 북돋운다.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한편, 지난 11월 9일(목) 보건복지부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SBS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인적 나눔, 물적 나눔, 생명 나눔, 희망 멘토링 등 4개 분야에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SBS는 <희망 TV>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웃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상진 기술본부부장, '2023 전파방송진흥 유공자' 선정



김상진 기술본부부장

11월 13일(월) DDP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제24회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에서 김상진 SBS 기술국 기술본부부장이 '2023 전파방송진흥 산업 분야 유공자'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매년 정책, 산업, 학계 각 분야별 1명씩 유공자를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방송사 기술 부문에서 '전파방송진흥 유공자'로 선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진 기술국 기술본부부장은 그동안 신규 방송 서비스 개발 및 방송기술 표준화 의장직 수행을 통해 관련 업계 이해 충돌을 해결했으며, AI 기술을 방송 미디어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BS M&C

일본 미디어·광고 업계 기업 탐방 첫 시행



SBS M&C는 글로벌 연수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8일(수)부터 10월 21일(토)까지 3박 4일간, 총 5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일본 미디어, 광고 업계 워크숍을 시행했다. 이번 연수는 일본 미디어 및 광고시장의 Key Player들을 방문하여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인사이트를 얻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일정 동안 일본 최대 방송 통신 사업자이자 SBS M&C의 주주사인 'J:COM', 광고 회사 '하쿠호도', 민영방송사인 'NTV'까지 일본 미디어 업계의 최상위 기업들을 탐방하여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전 일정을 소화하며 각 회사의 사업 구조부터 일본 미디어산업과 광고시장의 최신 동향, 일본의 광고 회사와 방송사 간 협업 사례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었다. SBS M&C는 앞으로도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유익한 글로벌 연수 제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